

英, 초등학교·유치원 ‘마음챙김’ 주목

영국 셰필드 지방의 한 초등학교와 부설 유치원에서 마음챙김 관련 교육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영국의 언론매체 스타뉴스는 셰필드초등학교와 브롬힐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인 ‘아동과 마음챙김 연구’를 다루고, 사라 스미스(Sarah Smith·셰필드초등학교) 교사의 말을 인용,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긍정적”이라고 보도했다.

“아동과 마음챙김 연구”는 셰필드대학 산하 심리클리닉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앤드류 퍼디컴비 교수, 리사메리 베리·조르지나 로스 박사 등이 도맡고 있다.

“심리학자들이 볼 때, 마음챙김은 순간에 집중하고, 고민을 떨쳐내는 탁월한 방법”이라고 전제해 퍼디컴비 교수는 “마음챙김 관련 연구가 주로 성인에 한정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워 아동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아이들 감정 및 행동 발달에 효과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학과 시간에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매주 2회 3주간의 마음챙김을 체험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매주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15분간의 마음챙김 실습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지금 여기(here and now)’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한 리사메리 박사는 “놀이 중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상상력 연습(Imagination Exercises)’”이라며 “이 놀이가 아이들의 마음 영역을 넓혀주는 대표적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상상력 연습’은 아이들이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게 하고, 그것의 변화를 지켜보

**셰필드초교·브롬힐유치원 등
BBC, ADHD 치유 영상물 제작**

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치유하는 계기로 삼는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눈(snow)의 세계를 ‘상상’하도록 요구하고, 다시 아이들에게 눈이 녹으며 사라지고, 대지가 나타나는 광경을 ‘상상’하게 만든다.

리사메리 박사는 “여기서 눈(snow)은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에 비유되는 것인데,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무쌍한 눈에 현혹되지 않고, 눈(snow)으로 가려진 대지에 정착하고, 여기에서 아이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사메리 박사는 “교육 내용은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대단히 효과적”이라며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인식의 폭을 넓



셰필드 유치원·초등학교가 어린이들을 위해 ‘상상력 연습’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은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게 하고, 그것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치유하는 계기로 삼는다.

히는 것은 물론 한편 집단의 그것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치원생에게는 보다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유치원생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성인들이 등장, 유치원생에게 ‘안녕’이라는 인사말을 건네기도 하고 그들의 주변을 걷기도 한다. 이들은 유치원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하는데, 조르지나 로스 박사에 따르면 “아이들이 순간에 집중하고 동요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 힘을 길러주는 게 해당 프로그램에서 성인들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아이들은 자신의 발을 내딛으며 밭과 대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견

기 프로그램’과 마음의 소리를 듣는 ‘듣기 프로그램’ 등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조르지나 로스 박사는 “마음챙김은 감정에 매몰되지 않게 하는 수련인 만큼, 아이들에게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의력 결핍 증후군(ADHD)’을 치유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 프로젝트가 이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확대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리사메리 박사와 조르지나 박사는 영국 국영 방송 BBC의 요청을 받아, 마음챙김을 응용해 ‘주의력 결핍 증후군(ADHD)’ 앓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교인식론·범어 필사본연구 권위자

세계의 불교학자(37)

엘리 프랑코
독일 라이프찌히대 교수



엘리 프랑코(Eli Franco·59) 독일 라이프찌히대 인도학과 교수는 이스라엘 출신의 불교학자다.

그는 인도철학, 불교 인식론 분야에 업적을 남기고 있다. 특히 인도불교학 가운데서 불교의 인식론이나 논리학적 전통이라 할 수 있는 뿌라마나 전통을 주된 연구 분야로 삼고 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태어난 프랑코 교수는 고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학창시절에 그는 유럽중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유대인들의 문화와 역사를 주로 배웠다. 어릴 때는 역사·철학보다 수학·물리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다 그는 1967년 이스라엘 6일 전쟁 등 격동적 역사적 상황을 겪으면서 사회·정치적 현실에 관심을 갖게 됐다. 평화운동에 가담할 때는 인문학·사회과학분야로 눈을 돌렸다. 당시에는 생선·분배에 대한 고전적 좌파의 주장을 할 필요 없이 단지 평화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좌파로 취급되던 시기였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프랑코 교수는 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1976년 텔아비브 대학에서 철학 학사학위를 받는다.

이후 그는 샤프슈타인(Scharfstein)의 비교철학강좌를 들으며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인도 아흐메다바드에서 수학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인도철학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범어 필사본 연구 권위자로 정평이 나갔던 그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배울 수 없었던 산스크리트어를 독학하고 인도학 공부를 시작하며 “당시 인도학과 불교학 공부의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다면 아마 다른 분야를 전공했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프랑코 교수는 존경하는 불교학자로 독일 함부르크대 슈미트 하우젠 교수를, 인도학자로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윌렘 할프하스 교수를 꼽는다. 슈미트 하우젠 교수는 학커(Hacker)와 후라우발너(Frauwaller) 교수를 사사(師事)했으며,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할프하스 교수는 발트슈미트(Waldschmidt)에게 인도학을 배운 비교철학자다. 그는 두 스승에게서 엄밀하고도 비판적인 문헌학의 전통에서 서서 작업하는 태도를 물려받았다.

보편성을 지향하는 철학적 관심을 가진 그는 학사학위 논문으로 ‘용수와 장자 그리고 셉투스 엠펜리쿠스에 대한 비교’를, 1980년 파리 10대학에서 ‘고대 인도철학에서의 유토피아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코 교수는 당시 제대로 연구되고 있지 못했던 인도의 회의론전통을 대표할

수 있는 자야라쉬에 대한 연구에도 몰두했다. 그의 연구는 불교 문헌과 많은 인도 철학 개설서에 상당 분량을 차지하며 언급되면서도 실제적인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인도의 유토피아, 회의론 전통에 대한 연구에 본격적인 성과를 보여준 작업이었다.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인식론전통에서 중요한 사상가인 달마카르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식론이란 종교적 배경과 무관하게 연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관련한 논문으로 교수자격학위를 받은 프랑코 교수는 독일 함부르크와 베를린에서 인도학을 가르치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대에서 인도·불교학을 강의했다. 현재는 독일 라이프찌히 대학 인도학과 교수로 몸담고 있다.

이스라엘 출신 불교학자

범어 독학...인도불교학 전공

뿌라마나 전통 연구

불교 인식론-논리학 체계화

그는 한국불교에도 관심을 보인다. 2005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범어 필사본 연구와 유럽의 불교학 방법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초청돼 ‘가장 오래된 산스크리트 필사본’, ‘현상과 원효의 유식(唯識)에 대한 논쟁’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프랑코 교수는 교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교 인식론(praarticle)전통의 연구에 있어서라면 우리는 혁명적이라 할 만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북경에 있는 수고(手稿)들이 연구될 수 있다면 그런 변화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북경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 수고가 개방됐을 때 문헌학적 역량과 이론적 해석능력을 갖춘 프랑코 교수와 같은 학자들이 그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할 수 있다면 연구의 수준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는 “내 자신이 불교신자는 아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인류에게 의미 있고 받아들일만한 세계에 대한 이론이나 관점을 불교가 제공한다고 생각한다”며 불교라는 종교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재은 기자

티베트 망명 정부, “中과 대화준비 돼 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중국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 다음 절차는 중국의 손에 달려 있다.”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티베트인들의 분신자살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티베트 망명 정부가 중국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텔레비전 국제방송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10월 6일(현지시간) “10월 5일 티베트 망명정부 국무총리 롭상 상계가 인도 뉴델리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언제나 중국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상계 총리는 “최근 티베트인들의 반중 시위나 분신자살 사태로 중국 당국의 더 강경한 대응이 우려된다”며 “망명 정부는 시위자와 함께 싸울 책임이 있지만 분신(焚身)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시창(西藏)자치구(티베트) 나취(那曲) 지역에 거주하는 구드루프라는 시인이 자신의 SNS에 유서를 남기고 분신자살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상계 총리는 “우리는 티베트 내부(시창자치구)에서 가혹한 탄압이 이



티베트 망명정부 국무총리 롭상 상계

뤄지는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항의를 권장하지 않는다”며 “티베트인들이 당국의 지배에 반대하거나 달라이 라마를 지지하는 티베트인들이 비밀리에 살해당하거나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59년 인도로 망명한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인들의 분신자살을 선동한다고 주장하지만 달라이 라마는 이 같은 배후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한편 티베트 인권단체 자유티베트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최근까지 중국과의 대(對) 티베트 정쟁에 항의, 분신한 티베트인이 53명에 이르고 이들 가운데 최소 41명이 사망했다.

이재은 기자

뉴욕 강에 흐르는 부처님 형상 풍선 인기

한국출신 예술가 이창진 작품, 내년 3월까지 전시

미국 뉴욕의 이스트 강(East River)에 부처님형상의 튜브가 떠 있어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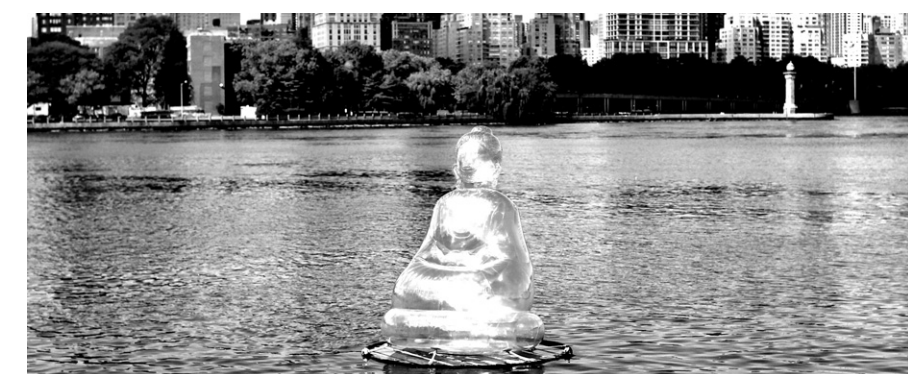
뉴욕타임즈는 10월 2일(현지시간) 한국 출신 비주일 아티스트인 이창진 씨가 제작한 ‘플로팅 에코(Floating Echo)’를 소개했다. 부처님이 좌선하고 있는 모습의 플로팅에코는 3m 높이의 투명한 튜브재질로 만들어져 백합나무 패드에 놓여 강위를 떠다니고 있다.

신문은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형상을

보고 평화를 느끼고 있다. 이는 통아일랜드시의 조경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품을 본 넬슨인 에드 씨는 “퇴근길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공원에 들렀다 불상 작품을 보고는 평온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교성을 띠는 작품이라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인 태고 시오리 씨는 “이 작품이 정말로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은 기자



부처님이 좌선하고 있는 모습의 플로팅에코는 3m 높이의 투명한 튜브재질로 만들어져 백합나무 패드에 놓여 강위를 떠다니고 있다. 이창진 씨의 작품은 뉴욕 통아일랜드시의 ‘소르테스 조각공원’ 내부에 흐르는 이스트 강위에서 2013년 3월까지 떠다니게 된다.

불자 정보
910호 |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 주차 40대가능
• 가액: 5억 5천만원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응암3동 대림시장 맞은편
• 버스 정류장 앞, 4층건물 3층, 25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신선, 칠성, 독서당
• 에어컨 2대 포함 집기 일체, 즉시 법회 가능
• 물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8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010-3209-0408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청양, 80년된 암자
• 행정수도에서 20분
• 큰바위에서 석수 흐름
• 국유지 사용평수 1000평(종교시설)
• 임대료 : 1년 15만원
• 가액 : 7천7백만원
• 법당15평, 요사채45평(리모델링 완료)
010-6680-0514

사찰안내
• 위치: 대구 달성군 옥포면(비슬산아래)
• 대지 92평, 한옥주택 개량 법당, 마당(정원)
• 방3, 욕실 2, 욕상 간이법당(조립식)
• 법당 시설물(삼존불, 행화, 에어컨 등) 포함
• 가액: 1억 5천만원
• 인생상담 혹은 수행처로서 법당 운영할 분 적합
010-5538-0588
053)616-0508

포교원안내
• 위치 : 거제시 고현시내
• 평수 : 50평 (3층건물에 2층)
• 법당 : 15평 방 : 10평 접전실 : 25평
• 보증금 : 이천만원 월세 : 135만원
• 시설비 : 2천 5백만원
010- 6768-6857

사찰안내
• 위치 : 여수 돌산 둔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양도가액 : 2억(절충가능)
•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사찰안내
• 위치 : 청도 (대구에서 30분거리)
• 평수 130평
• 건평 42평(인법당)
• 가액: 1억 6천만원(절충가능)
• 남향 교통편리
• 비구니 스님 적합
010-2501-3671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 위치 조건이 좋은 대로변
• 평수 약 30평
• 3층 건물 중 2층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결정
• 꼭 하실분만 연락 요망
010-3572-8426

3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점점이 좋습니다~
①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②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③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④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⑤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3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정경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8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